

건축사 자격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사 만큼이나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어야 하는 경우도 별로 흔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자격증”이란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과 자질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전문직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의 비중이 자못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의 책무가 전문적인 학식과 기술을 토대로 건전한 사회발전에 일차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며 그 상대가 바로 국민 전체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알찬 성과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건축사가 그 본연의 지위나 역할 면으로 보아서 사회의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기나 긴 인고의 수련과 역경을 헤치고 차지한 건축사라는 지위를 과연 얼마 만큼이나 견실한 노력을 기울여 보람되게 유지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간에 고도의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인의 창작품이 행정적 절차를 위한 단순한 한낱 요식행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사회풍토나 영세성을 면치 못해 현상유지에 급급한 대부분의 빈약한 사무소의 실태가 또한 오늘날 건축사의 위치를 단편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일도 아니며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아무리 외쳐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방관적 태도와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도



## 地位向上과 會員의 義務

柳 光 澤

五洲建築設計社代表

사리고 있는한 空念이 되고 말뿐 아니라 화합과 질서를 저해하는 葛藤의 요인으로 부조리를 조장케 하는 것이며 회원 모두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권익과 지위는 우리의 자각과 협력에 의하여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며 결코 남이 만들어 줄 수는 없는 일들이다. 합의의 과정을 통해 전체의 공통된 이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막상 일이 결정되고 실천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은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하여 뒤늦게 반대하고 일일이 비난을 일삼는 일부의 풍조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며 무절제한 개인주의 의식의 본능적 양상으로서 葛藤과 혼란을 유발하고 自主力의 약화를 가져오게 하여 외세에 의해 간섭받고 남에게 끌려 다니는 불행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창작의 자주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기 책임의 정신이 생겨날 수 없으며 전문분야에 대한 새로운 창조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他的 요구에 추종하여 개성없이 행한 바를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존을 위한 인고로서 수행되

는 단순한 근로 행위에 긍지와 보람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사회의 정신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수치나 물량과 같은 외형적인 면에만 눈을 밝힐 때 불행과 좌절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富를 축적하겠다는 물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그 의지를 찬란스럽게 여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자기비하의 소산인 소위 고질화된 보수액의 할인행위가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 잔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부조리의 근원과 책임이 “남”이 아닌 “나”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이성을 발휘하여 자주적으로 결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해를 거듭하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이 민족의 도약을 위한 전환을 이룩하려는 범국민적 운동이요 사회정의의 구현하는 시대적 과업으로서 오늘의 세대가 다같이 져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절감하므로써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우리의 발전 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폐습의 타파를 위한 확고한 결의와 투철한 신념으로 전회원의 저력을 모아 총화동참의 일로 매진하므로써 외부로부터의 규제나 간섭에 끌려 다니는 태만과 미성숙의 상태를 벗어나 창작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건축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건축문화의 창조자라는 사명의식의 구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기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고 보다 세련된 전문적 기량을 소유할 때 보다 높은 인격적 존경을 받으며 주체적 참여를 통하여 자기실현의 보람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지위는 스스로 향상되리라 믿는다. (\* )